

Interview with Lee Gi-young
Conducted by Steven Denney
June 5, 2015

1) 얼마나 자주 외국인(한국에서 살고있는 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 접촉
합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씩...

2)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사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합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은 주로이주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오래 한국에 있어서
job 을 끝까지 갖고 일하길 원한다. 비록 “undocumented” 신분일지라도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중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한국이 좋아 일거리도
찾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온 사람들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적당한 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길 원하는 두 그룹으로 나뉘볼 수 있다

3)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습니까? 이런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나의 가치기준으로 그들의 삶은 하층민의 삶이지만. 그들의 가치기준으로는
매우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가끔 집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폐쇄적인 모습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4)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한 일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왜 또는 왜 아닌지
설명해주세요.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일부이지만 이 사회의 시민의식이 너무 낮아서 이미 일부가 된
그들을 아직도 선을 긋고 철저히 구분 짓는 경향이 있다. 남한이라는 지형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사회의 일부로 받아 들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조선시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또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개인적으로는 이미 외국인은 이 사회의 일부이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력이 되어 있으므로 - 현재 한국사회의 일부이다.